

큰스님 수행한담

“비교하는 분별심서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혜운스님 <여여선원장>



- 1931년 출생 대전 생
47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황국 스님을 은사로 득도
49년 법어사 금어선원 인거이래 12하안거 성만
61년 통회사 염불암 주지
81년 여여선원 선원장에 부임
조계종 제7대 중앙종회 의원,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고문역임
96년 선학원 이사
現 대구 여여선원에 주석

“현대인들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꼭 좌선해야 득도한다 생각 말고 각자 맡은 일 속에서 화두드세요”

요즘은 어찌된 게 한 번 말하면 자꾸 더하려고 해요. 해인사주지로 발령받은 문정령스님같은 분은 방중에 걸망을 지고 달아나기까지 했어요. 주지 안하려고 말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선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들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까닭은 무릇 무상정등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의 정리(情理)나 세상의 명리에 그달리지 않고 여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속을 등지는 것이기도. 출가사문이 재산을 축적하고 명리를 좇아서야 차라리 속

으로 남아있을만 못합니다. 그러한 일을 볼 때마다 같은 승려로서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요.
다산선생의 글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인불경심상정(與人不競心常靜) 위공무사용역한(爲公無私夢亦閑) 사람과 더불어 경쟁하지 아니하니 마음이 항상 고요하네. 공을 위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니 꿈속에서도 또한 한가롭네”
참으로 와 닿는 바가 있어 늘 곁에 적어두고 경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따지는 분별심에서 갖은 번

뇌가 싹트기 시작하고 도에서 어긋나게 하지요.
은사스님은 피부가 검고 체격은 우락부락해서 처음 대했을 때는 다소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더욱이 스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하셔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36세되던 해 문경 봉암사에서 수도 없는 도반인 성철스님을 비롯하여 청담 보문 자운 스님 등과 청규를 제정하고 용맹정진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성철스님이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는 옛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딱혀 침묵도 있고 일념삼매에 들어간지 어느날 대문앞을 지나다가 홀연히 당신의 양손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확실히 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하신 스님은 천하의 총림에서 사자후를 하셨는데, 그 기쁨이 험준하여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동대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략적 요충지인 대적이 폭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서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사를 갔지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하나뿐인 나를 키우셨는데 일타스님의 막내외삼촌인 진우스님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분 덕택으로 동학사의 남무불스님한테 한학을 배우러 다니게 됐는데 어린 마음에 스님들의 생활이 참 근사해 보였습니다. 결국 47년, 해인사로 가서 향곡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당시에는 입산하러 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던지 “자기 미친놈 또 하나왔다”면서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장작불 때는 부목 3년에 반찬만드는 채공과 공양주시절을 포함. 10년은 죽히 걸려야 정식으로 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처럼 몇 개월만에 종이 된다는 것을 상상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담금질과 망치질을 오래할수록 견고한 칼이 만들어지듯 오래도록 단련시킨 수행자는 잇길로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행자시절에 공양주와 채공소임은 거의 내 뚫이었는데, 어느날 문득
“공양주도 못 오래 하면 복덕이야 많이 짓겠지만 그것도 업에 지나지 않을뿐 깨달음과는 상관없이 없지 않은가? 머리깎은 이유가 무엇인가. 화두를 쟁겨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조바심을 내던 어느날 한 노장 스님이 “공양주만 하면 복덕이밖에 안돼. 밥 지으면서도 화두를 쟁겨야 한다”는 말씀에 일하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동중정(動中靜)하고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들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지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맡은 일속에서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꼭 좌선을 해야만 도를 깨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선을 하면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루 24시간이 다 참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기도. 더구나 하루 종일 앉아 있을수도 없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바로 생활속에서 선을 해야 합니다.
참선은 묘함이 성성(惺惺)한데 있으니 몽롱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며 화두가 끊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틈새에도 갖은 망량이 침입해오니 뻔뻔하게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화두를 의식적으로 들지 아니하여

도 자연히 화두가 현전해지는데 이때는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서 안됩니다. 다만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끊어짐이 없게 하면 말지않아 현묘지도(賢妙之道)를 보게 됩니다. 마음을 조금씩 가지면 열기가 고르지 못하는 등 병이 생기니 바른 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은사인 향곡스님은 경전은 가르쳐주시지 않고 선방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대적이나 강원엔 보내 글공부를 시켜놓으면 주지같은 행정승을 하다가 환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글공부시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요. 그때는 스님들 스스로도 선방에서 참선해서 견성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으며 주지직 같은 사관은 서로 말지 않았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말은 주지직도 임기만료전에 내버리고 떠나는게 유예이었지요.

(6)
(佛言)惡人聞善 故來攪亂者
(불언)악인문선 고래교란자
汝自蒸恩 當無瞋責
여자금식 당무진책
彼來惡者 而自惡之
피래악자 이자악지

(불언)악인해연자 유양천이타
唾不至天 還從己墮
타불지천 환종기타
逆風揚塵 塵不至彼 還盈其身
역풍양진 진부지피 환분기신
賢不可毀 禍必滅己
현불가훼 화필멸기

‘악한 사람이 착한 이를 찾아와 고의로 어지럽게 하더라도 그대는 스스로 말려들지 말고 성내거나 꾸짖으려 하지 말라. 그는 스스로 악행을 했을 뿐이다.’

‘악한 자가 어진이를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하늘에 닿지 않고 제얼굴에 떨어지는 것과 같고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면 먼지가 상대에 이르지 않고 제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
현인은 책방할 수 없으니 화는 반드시 해하려는 자를 멸한다.’

(7)
(佛言)有人問吾守道 行大仁慈
(불언)유인문오수도 행대인자
故致竭佛 佛默不對 罵止
고차매불 불묵부대 매지
問曰 子以禮從人 其人亦不納 禮歸子乎
문왈 자이예종인 기인불납 예귀자호
對曰 歸矣
대왈 귀의
(佛言)今子罵我 我今不納 子自持禍歸
(불언)금자매아 이금불납 자자지화귀

(9)
(佛言)博聞愛道 道以難會
(불언)박문애도 도이난회
守志奉道 其道甚大
수지봉도 기도심대
‘널리 듣는 것만으로 도를 좋아해서 는 필시 깨우치기가 어렵다.’

“악한 사람이 고의로 어지럽게 해도 그대는 성내거나 꾸짖으려 말라”

子身矣
자신의
猶觀應聲影之隨形 終無免難 慎勿爲
유항응성영지수형 종무면리 신물위
惡
악

뜻을 굳게 하여 도를 받들어야 깨우침이 매우 크리라.’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켜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고의로 나를 매도했지만 내가 잠자코 대꾸하지 않았더니 욕하기를 그쳤다.
내가 제자에게 물었다. ‘네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주었으나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내게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제자가 ‘되돌아 옵니다’ 했다.
“그렇다. 이제 내가 나를 욕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너 자신에게 되돌아 간다.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는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 끝내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삼가 악을 짓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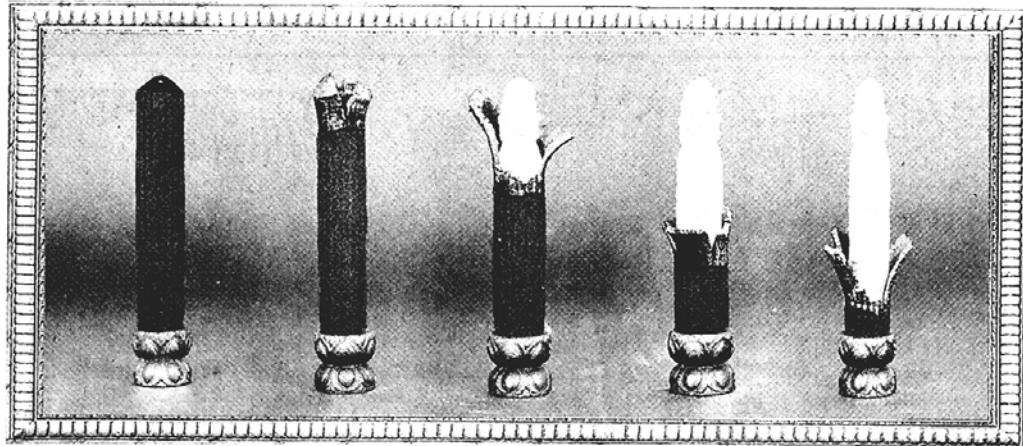
(10)
(佛言)觀人施道 助之歡喜 得福甚大
(불언)도인시도 조지환희 득복심대
沙門問曰 此福盡乎
사문문왈 此福盡乎
(佛言)譬如 一炬之火
(불언)비여 일거지화
數千百人 各以炬來 分取熟食除冥
수천백인 각이거래 분취숙식제명
此炬如故 福亦如之
차거여고 복역여지

‘남이 도를 펼치는 걸 보고 이를 도와 기꺼워하면 그 복덕이 매우 크다.
어떤 사문이 물었다. ‘이 복에 다함이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하나의 횃불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횃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나누어 음식을 끓이고 여물을 밝히도 그 횃불은 그대로 있을 터이니 복도 또한 그와 같다.’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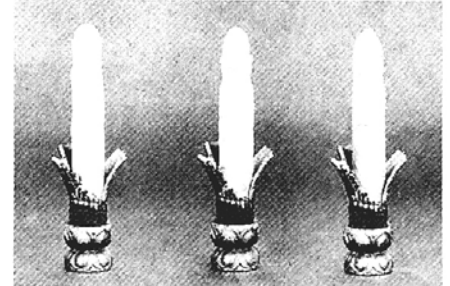
(8)
(佛言)惡人害賢者 猶仰天而唾
(불언)악인해賢者 猶仰天而唾

龍眼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항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항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색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한 후에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내부적으로는 타고 남은 재가 흰색법상의 부처님 형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뜻은 외형과 결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 즉 몸을 귀히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법리와 상통합니다.
현상공덕항은 초하루, 보름, 석가탄신일, 백중, 법회 및 각종 기념행사와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항입니다.
향이 타는 도중에 부처님의 법상이 출현하고 부처님시중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7가 84-10
총판 및 대리점문의
Tel: (051) 466-3731~2 Fax: (051) 466-3733
권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권